

고문사례 유형화 작업을 위한 조사

작성 일시 : 97년 6월 23일

작성자 : 한은실

줄서기

1. 유정식 (75. 3. 2) - 방북자 조작간첩 사건
2. 김환진 (77. 6) - 보안사 고문 사건 - 후유증으로 사망
3. 임기윤 (80. 7. 19) - 보안사 고문 치사 사건
4. 석달윤 (80. 8. 21) - 월북자가족 조작간첩 사건
5. 박동운 (81. 3. 7) - 전도가족간첩단 사건
6. 김정복 (82. 7) - 남북자 조작간첩 사건
7. 김정호 (82. 12. 10) - 북밀항자 조작간첩 사건
8. 함주명 (83. 2. 18) - 월남자수자 조작간첩 사건
9. 정영 (83. 9. 13) - 남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10. 이상철 (83. 10. 15) - 남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11. 김근조 (83. 3. 22) - 치안본부 고문 치사 사건
12. 조봉수 (84. 8. 13) - 대공분실 간첩날조 사건
13. 황대권 (85. 6. 4) -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14. 김성만 (85. 6) -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 15-1. 박충렬 (86. 10. 30) - 반제동맹 사건
- 15-2. 이민영 (86. 10. 30) - 반제동맹 사건
- 15-3. 염종영 (86. 10. 30) - 반제동맹 사건
16. 박인균 (86. 11. 7) - 보안사의 박인균 살해기도 사건
17. 강환웅 (86. 11. 13) - 신길동 학생시위 사건
18. 이성수 외 **명 (90. 9)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19. 주병화 (92. 9. 14)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1> 방북자 조작간첩 사건 - 유정식

1. 이름 : 유정식(안동교도소)
2. 생년월일 : 1940년 (일본출생)
3. 사건명(사건번호) : (임북자 조작간첩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75. 3. 2.

4-1. 사건 개요 : 유정식씨는 1940년 일본에서 태어나 5살 때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60년대 일본 니혼대와 동경대에서 농업을 공부했다. 일본 거주시 두차례 북한을 방문(68년 2월)하였으나 호기심 이상은 아니었다. 1970년 2월 한국에 돌아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고 미술품 상인으로 생활하였다. 1975년 3월 2일 명동 코스모스백화점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불법강제연행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그의 방북전력을 근거로 간첩으로 조작하였으나, 재판에서는 증거가 없어 '간첩미수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았다. 극심한 고문으로 인해 현재(93년 이후)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5. 구금 기간 : 1975. 3. 2. - 현재(93년 이후 - 무기형)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본 자료로 추정 불가능.

7. 수사기관 : 중앙정보부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주먹, 몽둥이, 구둣발로 무차별 전신 구타, 잠 안재우기(10여일), 굶기기, 무릎 꿇린 채 무릎사이에 야전침대 받침대를 끼우고 허벅지를 구둣발로 밟거나 몽둥이로 때리기, 벽 모서리에 세우고 수사관 4-5명이 몰매놓기 등.

* 고문 도중 의사가 눈을 뒤집어 보고 '더이상 수사를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고문을 중단한 일이 세 차례 있었음.

* 고문을 견디다 못해 변기에 머리를 처박고 자살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음.

* 재판 도중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여러번 기절하였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 재판 후 누나가 면회를 가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만 병긋거림. 정신과 치료 받음.

* 고문으로 인해 틀니를 착용하게 됨.

* 교도소에서 몇 차례 쓰러져 6개월씩 심장전문치료 받음.

* 현재도(93년 이후) 청각장애, 시각장애로 고생.

10. 재판 관련 사항 : 재일동포 김달남과 함께 간첩단의 주범으로 되어 있으나 재판은 분리되고 신문에도 두 사람의 관련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다.(김달남은 사형선고를 받고 안기부의 공작에 협조, 77년 3월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77년 12월 특사로 석방되었다.) 85년 옥중에서 읽은 일본잡지 <문예춘추>에 기재된 북한기사에 대해 다른 수형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빌미가 되어 반공법으로 추가형 3년을 받았다.

11. 고소, 고발 여부 : 국제사면위는 유정식씨가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에 근거해 유죄판정 받은 양심

수로 보고, 한국의 새정부(김영삼정권)에 그의 사건을 긴급히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의 두차례 방북혐의와 그곳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와 그의 가족들은 조작된 것이며 그가 조사기간 중 고문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건은 1970-80년대 고문으로 이뤄진 자백에 근거해 장기형을 선고받은 많은 다른 정치범들과 유사하다.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① 유정식씨 누나의 호소문(제작 일시 : 1993년 이후)

② 자료정리문(도표 포함) - 자료 1차 정리자

2> 보안사 고문 사건 - 김환진

1. 이름 : 김환진
2. 생년월일 : (1935년)
3. 사건명(사건번호) :
4. 사건발생 시기 : 1977. 6.

4-1. 사건 개요 :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상고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던 김환진(당시 42살)씨는 77년 6월 어느날 중앙정보부 전주분실에 끌려가 이를 만에 돌아 온 뒤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뒤인 78년 9월에 숨졌다. 그는 수업시간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등 유신체제를 비판한 것이 빌미가 돼 밀고를 당했다. 중앙정보부는 혹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자신을 용공분자로 조작하려 했다고 한다. 정보부에서 돌아온 김환진씨는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으며 잔뜩 겁에 질린 채 “이런 사실을 발설하면 죽인다고 했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흘 뒤 “용공교사니까 사표를 내라”는 교육청의 종용을 받으면서부터 더욱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김환진씨가 한을 품은 채 1년 남짓 투병생활을 하다가 숨지자 그의 아내 박정자씨는 후환이 두려워 식구들과 거의 접촉을 끊다시피 하며 식당종업원, 파출부 등 막노동을 해가며 다섯 남매의 생계를 이어왔지만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한이 있다. 비판적 지식인에게 엄혹했던 70년대 유신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 당한 끝에 그 후유증으로 숨진 한 고교 교사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그의 아내 박정자씨가 김영삼정권에 제출했다.

5. 구금 기간 : 2일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2일
7. 수사기관 : 중앙정보부(전주분실)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구체적인 고문방법은 알 수 없음.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함.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고문의 후유증으로 1년 동안 앓다가 숨짐.
10. 재판 관련 사항 : 불법연행고문. 재판 무.
11. 고소, 고발 여부 : 87년 전두환정권에 탄원서를 냈으나 묵살당했음. 그의 아내 박정자씨는 16년이 지난 1993년 김영삼정권에 탄원서 제출.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한겨레신문 (1993. 9. 16)

3> 80년 보안사 처사 사건 - 임기윤목사

1. 이름 : 임기윤
2. 생년월일 : (1923년) - (80년 당시 57세)
3. 사건명(사건번호) :
4. 사건발생 시기 : 1980. 7. 19.

4-1. 사건 개요 : 유신 때인 75년 2월 16일 침례교와 성결교를 포함한 범교단적 조직으로 '사회정의구현 부산 기독인회'를 구성,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70년대 대표적인 활동적 지식인이었던 임기윤목사는 1980. 7. 18일 '참고인으로 출두하라'는 보안분실의 통지서를 받고 토요일인 19일 새벽 6시 주보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다음날 설교준비를 해두고 집을 나섰으나 다음날인 20일 오전 10시께 전화로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주일 설교를 다른 목사한테 부탁하라는 말을 남겼다. 80년 7월 21일 오후 1시께 "임목사가 쓰러졌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부인과 큰아들이 보안사 부산분실로 달려가 국군통합병원으로 안내됐을 때 임목사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고, 26일 밤 11시경 숨을 거두었다. 부인 최씨(간호사 출신)는 "머리카락 속을 살펴보니 후두부가 2-3센치 가량 벗겨져 있고 끝부분에 피가 맺혀 있었다"며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군당국은 임목사가 고혈압에 의해 숨졌다고 발표하였음.

감리교사회전교협의회는 임목사의 죽음은 "전국민의 민주화 열기와 광주민중항쟁을 피로 짓밟은 제5공화국 정부가 탄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민주인사에 대한 협박, 회유 공작을 벌이다 일어난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라고 발표했다. 또 "임목사는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숨졌거나 적어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공포분위기에서 정신적인 고문을 당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5·17이후 군부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각 부문의 민주인사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임의출두 형식으로 불러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 중 하나였다.

5. 구금 기간 : 3일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3일로 추정)
7. 수사기관 : 보안사(부산분실)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자료미비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사망
10. 재판 관련 사항 :
11. 고소, 고발 여부 : 임목사의 고문치사 여부를 밝히려는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인규명이거나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한겨레신문 (1988. 12. 30)

4> 월북자가족 조작간첩 사건 - 석달윤

1. 이름 : 석달윤(전주교도소 2120번)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월북자 가족 간첩조작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0. 8. 21.

4-1. 사건 개요 : 1960년 국립경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간첩색출에 대한 현지교육을 이수하고 근무하던 석달윤씨는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다. 석달윤씨가 받은 혐의는 1950년 6.25 당시 서울에서 같이 하숙하던 고종사촌형인 남파된 박양민과 접선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에 장재영(화성의원 진도원장, 1950년 당시 서울대 의대 의예과 재학시 박양민과 같이 하숙, 4년 복역), 박공심(박양민의 누이동생, 2년 복역) 등도 연루되었다. 정보부는 고문을 통해 석달윤씨에게 박양민과 8년에 걸쳐 8번 접선했었고 북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허위자백하게 했다. 또한 정보부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40여일간의 세뇌고문을 행하였다.

5. 구금기간 : 1980. 8. 21. - 현재(본 문서 작성 당시 1990. 2. 5)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47일 (1980. 8. 21. - 10. 6.)
7. 수사 기관 : 중앙정보부(남산대공분실)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잠 안재우기, 밤에 두 손을 수갑을 채워 높은 곳에 매달아 잠 안재우기, 전신 몽둥이(길이 50센치, 직경 3센치 정도의 지휘봉) 구타, 통닭구이, 물고문, 송곳찌르기, 거꾸로 매달기, 6각으로 된 각목(직경 5센치) 위에 꿰어 얹힌 후 전신 구타, 성고문(불펜심지를 성기의 요도에 보이지 않도록 쑤셔넣기), 전기고문하겠다는 위협, 외우기고문(세뇌고문)

* 발가벗긴 후 땅바닥에 누인 뒤 손과 발을 네 사람이 밟고 얼굴에 물을 먹이는 물고문과 통닭구이 자세에서 물을 먹이는 물고문이 행해졌다. 많은 물을 먹인 후 물을 빼내기 위해 다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발로 배를 밟아 이리저리 굴리는 가혹한 고문을 행하였다.

* 송곳으로 찌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약명 미상의 알약을 먹였으며 그 약을 먹으면 계속 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데, 매일 오전 10시경이면 의사와 여자간호원이 와서 혈압을 재고 혈압이 정상이므로 어김없이 물고문, 거꾸로 매달아놓고 물먹이는 고문, 몽둥이 세례 고문 등이 3주 이상 계속되었다. 송곳으로 찌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쇠고기를 5근 정도 5-6차례 사다가 계속 동여매주었다.

* 전신을 묶고 누인 후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물고문 후 완전히 질식했다가 깨게 되면 어깨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던 것이 5-6차례 되었다.

* 잠 안재우기 고문으로 알 수 없는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 울었다.

* 불펜심지를 성기의 요도에 쑤셔넣으면 검붉은 피가 쏟아졌다.

* 허위자백을 세뇌(세뇌고문)시키기 위해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진술서를 쓰게 하였는데 한글자라도 틀리면 몽둥이로 미칠 정도로 두들겨 맞기를 40여일간 당하였다.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10. 재판관련 사항 : 필요적 변호사건의 위법성(석달윤씨의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으로 불출석하였음)을 들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끝난 1981년 9월 22일이 지난 3일후인 9월 25일에 재심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경과·결과 미확인)

11. 고소, 고발 여부 :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피해자의 아내가 사건의 전모를 성장한 막내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990. 2. 25 발신)

5> 진도가족간첩단 사건 - 박동운

1. 이름 : 박동운(광주교도소 3221번)
2. 생년월일 : 1945. 9. 2.
3. 사건명(사건번호)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1. 3. 7.

4-1. 사건 개요 : 박동운씨의 부친은 일제시대부터 항일운동을 하다가 6·25 당시 행방불명되었다. 박동운씨와 그의 동생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외가의 도움으로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에서 근무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성실히 살고 있었다. 1980. 12. 20일경 「김정인 간첩사건」이 보도되었다. 재북인 박양민이 김정인의 부친을 대동월북, 간첩교육을 시켜오다 그가 죽자 아들 김정인을 재교육시켜 활동을 시켜왔는데 그 일당을 체포했다는 보도였다. 안기부는 박양민을 잡기 위해 80년 7-8월경 잠복하였으나 체포에 실패해 궁지에 몰려있었 중, 진도호적을 일제히 조사하여 박동운씨의 부친이 6·25 당시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포착하여 박동운씨의 가족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박양민씨의 가족(어머니, 동생, 숙부, 숙모, 고모, 이모, 외숙, 제수 등)들은 안기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되어 박양민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형을 이미 살았고 박양민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5. 구금 기간 : 1981. 3. 7 - 현재(탄원서 작성 당시 - 1993. 11)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62일
7. 수사기관 : 안기부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전신구타, 잠 안재우기, 성고문, 밟기, 매달기, 발가벗기기, 기압, 매달기, 위협 등
 - * 손과 발바닥 구타, 머리와 온몸 무차별 구타(갈아입힌 군복이 피로 물들고 안티푸라민 맛사지와 온수목욕으로 피멍을 가시게 하였음)
 - * 잠 안재우기(잠 안재운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하여 고통스럽게 함)
 - * 발목에 족쇄 채우고 무릎에 경찰곤봉을 올려 놓고 발로 밟기(몇차례 실신)
 - * 성고문(벽에 붙은 세면기에 성기를 올려놓게 하고 신발짝으로 때리기를 세 번 정도. 그때마다 실신하면 찬물을 끼얹어 깨움)
 - * 발가벗겨 철창에 손목을 묶고 라이타불로 온몸을 지지거나 체모 태우기, 갓은 기압, 물고문, 발가벗겨 공중에 매달기, 어머니와 아내 또한 발가벗겨 네 앞에 매달아 놓겠다는 위협, 뺨굴에 처넣겠다는 위협, 소총 끝에 밀려 밖으로 나가게 함 등.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성고문의 후유증으로 현재(1993)도 하체의 통증으로 고통
10. 재판 관련 사항 : 박동운 무기, 숙부(박경준 33년생) 7년, 어머니(이수례 24년생) 4년, 동생(박근홍 47년생) 3년 6위르 고모부(허현 38년생)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로 형 확정. 나머지

가족은 불구속 처리. 큰외숙(이상용 19년생)은 안기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11. 고소, 고발 여부 : 본 탄원서 제출(1993)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박동운씨의 탄원서 (1993. 11)

6> 납북자 조작간첩 사건 - 김정묵

1. 이름 : 김정묵 (대구교도소 3119번)

2. 생년월일 : 1935. 3. 28.

3. 사건명(사건번호) : (납북자 조작간첩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2년 7월 초경. (1958년 납북)

4-1. 사건 개요 : 군제대 후 어업에 종사하던 김정묵씨는 1958년 안개가 많은 날 출항했다가 북한경비에 나포되었다. 김정묵씨는 같이 탑승했던 4명의 선원들과 함께 4박 5일 동안 평양과 해주에서 체류하면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은 북한에 납치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전부 병신이 다 되었다는 소문에 겁이 나서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서에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돌아왔다고 신고했다. 김정묵씨는 그후 어업에서 손을 떼고 인천, 서울 등지에서 목수, 외판원, 청소원 등 전전하면서 1982년까지 자식들에게는 못 배운 한을 풀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납치되었다 돌아온 지 24년이 지난 1982년 7월 초 그는 이유도 모르는 채 서부경찰서로 강제연행 당했다. 연행 후 김정묵은 온갖 고문을 통해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하고, 북한에 지령에 따라 남한으로 올 때 공작금 20,000환을 받았고, 뼈라를 고대와 연대에 살포하였으며, 납파된 간첩과 접선하며 간첩활동을 하였으며, 북한을 찬양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함께 납치되었던 김근희(김정묵의 8촌동생)의 아버지인 김창신의 납북을 도왔다는 허위진술까지 하여야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태희, 김근희형제는 고문에 못이겨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김정묵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진술하였으나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 사건의 조작을 위해 연행되기 며칠 전 그의 집에 「양심증언」이란 김일성찬양서적을 갖다놓았고, 뼈라를 마당에 뿌려 그의 딸이 집어오게 만들기도 하였다.)

5. 구금 기간 : 1982. 7. - 현재(사형구형)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40여일(1982. 8. 13일 서대문 구치소)

7. 수사기관 : (옥인동 대공분실)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곤봉, 몽둥이, 주먹, 구두발로 무차별 구타(한달간), 칠성판에 누여놓고 코에 물을 붓는 물고문, 겨자물을 코에 붓는 겨자물고문, 양손에 수갑을 짝 채워 놓고 수갑사이에 줄을 묶어 놓고 쓰러뜨린 다음 끌면서 흔들면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비비틀리는 고문, 잠 안재우기, 굶기기 등

* 한여름 3일동안 물도 주지 않고 굶겨 입안의 혀가 돌맹이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않고 입술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잠이 깨자 유혈낭자하였고 말을 못할 지경에 이름.

* 악독한 고문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려고 책상모서리에 있는 힘을 다해 머리를 박아 실신. 병원에서 머리를 찌맨 후 더 심한 고문을 당함.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물을 뿌려 정신 들게 한 후 또 때리는 고문을 견뎌야 했음.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10. 재판 관련 사항 :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것이라 밝히고 증인들도 고문에 의한 위증이라는 것을 밝혔지만 재판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11. 고소, 고발 여부 : 김정목씨는 진실을 밝히고자 '문민정부'에 이 글을 써서 호소(진정)하였다.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김정목씨의 옥중 호소문 (1993년 이후로 추정)

7> 북밀항자 조작간첩 사건 - 김장호

1. 이름 : 김장호(대구교도소 3122번)

2. 생년월일 : 1941. 2. 7.

3. 사건명(사건번호) : (북밀항 간첩 조작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2. 12. 10.(북밀항 체류 기간 1973. 4. - 1974. 4.)

4-1. 사건 개요 : 김장호(1941. 2. 7生)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45년 귀국하여 살다가 1958년 밀항도 일하였다. 일본에서 우연한 인연으로 조총련계통의 집에서 건축관계 일(노가다)을 하였다. 그는 1973년 4월경 지인의 권유로 북한에 갔다가 만 1년간 지내면서 관광과 당기관 학교에서 교육(혁명역사, 당건설, 철학, 정치경제학, 선집, 로작 - 1주일에 한번 3개월간, 권총사격연습, 무전수신연습 - 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국민학교 학생들도 받고 있음)을 받았다. 1974년 4월 일본으로 돌아가 자영업을 하며 생활하였다. 김장호씨는 1982년 결혼한 윤경자씨를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해 1982년 12월 10일 귀국하였다가 김포공항에서 안기부원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소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으로 남한에 보안법이 있다는 것과 북한에 갔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안기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본과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관들에게 갖은 협박과 고문을 받았고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김장호씨는 옥중서신에서 그의 한국방문은 23년만의 고향길이었으며 추후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어떤 정치적 목적도 갖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5. 구금 기간 : 1982. 12. 10 - 현재(옥중서신 작성 당시 - 1994. 2. 8)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50일 (1982. 12. 10. - 1983. 1. 30.)

7. 수사기관 : 안기부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잠 안재우기, 관절구타, 발바닥 침대받침대로 때리기, 기압, 벽에 코 대고 눈 뜨고 서기, 옆드려 뺨치기, 뺨 때리기, 공갈협박, 모욕적 언사 등.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10. 재판 관련 사항 :

11. 고소, 고발 여부 :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김장호씨의 옥중서신 (1994. 2. 8)

8> 월남자수자 조작간첩 사건 - 함주명

1. 이름 : 함주명(전주교도소)

2. 생년월일 : 1931년

3. 사건명(사건번호) :

4. 사건발생 시기 : 83. 2. 18.

4-1. 사건 개요 : 6·25 당시 개성상고 2학년이었던 함주명씨는 의용군으로 끌려간 사이 부모형제가 1·4후퇴 때 모두 월남하자 가족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대남공작원을 자원했다. 54년 군사분계선을 넘은 함주명씨는 그 즉시 자수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가족들 품에 안길 수 있었다. 그리고 29년 뒤,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간던 함주명씨는 83년 2월 18일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길을 걷다 영문도 모른 채 치안본부 대공분실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대공분실은 “우순화이라는 여자의 월남한 남편이 대남공작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향간첩 홍중수로부터 듣고 엉뚱하게 함주명씨를 지목하고 이 사건을 조작했다. 함주명씨는 이근안(외 이봉구, 이동구, 최평선, 최성명미상자 등 5명)으로부터 62일간의 고문을 받아 “위장자수한 뒤 30여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해왔다”는 허위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에서는 여러 증인들이 진술서를 강압에 의해 거짓을 썼다고 용감하게 증언하였으나 함주명씨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5. 구금 기간 : 1983. 2. 18 - 현재(본 신문기사 1993. 4. 4.)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63일

7. 수사기관 : 치안본부 대공분실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잠 안재우기(10여일), 전기고문, 물고문, 전신 몽둥이 구타, 발바닥 때리기, 굶기기, 볼펜으로 찌르기, 등

* 전기고문은 칠성판에 온몸을 묶고 양쪽 새끼발가락에 +, -전기를 동여매어 고문하였고 전기가 더 잘 통하게 하기 위해 발가락에 물을 뿌려 진행하였음.

* 물고문은 칠성판에 온몸을 묶고 얼굴에 수건을 덮고 샤워꼭지를 틀어 놓고 이근안이 가슴팍에 올라타고 앉아 꼼짝 못하게 만들. 더구나 이 상태에서 전기고문까지 병행하여 실신하게 함.

* 물고문은 또 양손을 뒤로하여 수정을 채우고 물을 가득 채운 욕조에 머리를 쳐박는 형태로 가해짐. 실신하면 물을 토하게 하였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조작된 사건들을 인정하게 함.

* 고문을 피하기 위해 자결하려 수사관들의 문구용 칼을 숨겼으나 발각되어 더 심한 고문 당함.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10. 재판 관련 사항 : 피의자와 증인들이 진술서가 강압과 고문에 의한 허위증언이라 밝혔음에도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11. 고소, 고발 여부 : 1989년 함주명씨의 아내가 장관 앞으로 탄원서 제출.

12. 수사관 처벌 여부 : 함주명씨를 고문했던 이근안 수사 중이나 성과없음.

13. 출처 : ① 한겨레신문 (1993. 4. 4)
② 함주명씨의 아내 이춘자씨의 탄원서 (1989)
③ 함주명씨의 항송이유서 부분 등사물

9> 남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 정영

1. 이름 : 정영 (대구교도소 3236번)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납북자 조작간첩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3. 9. 13. (1965년 납북)

4-1. 사건 개요 : 정영씨는 조실부모하고 강화 삼촌집에서 자라다 군제대 후 농업에 종사하였고, 19625년 부업으로 조업 중 해안에서 북에 납치되었다. 해주를 거쳐 평양에서 조사를 받고 만 20일 정도 북에 머문 뒤 평양계성을 거쳐 버스로 판문점에 도착, 미군에 인수되어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후 정영씨는 자식들 교육 때문에 강화에서 인천으로 나와 인천제철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던 중 1983년 9월 13일 인천 도암동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김성수 외 2명의 수사관에게 밤낮없는 고문을 받아 이북에서 정진구를 만났고, 교육을 받고 와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진술하게 되었다. 그는 고문에 견디지 못해 허위진술을 하였지만,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진실을 호소하였으나 소용 없었다.

5. 구금 기간 : 1983. 9. 13. - 현재(무기징역)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40일
7. 수사기관 : 안기부(인천 도암동)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팬티만 입히고 곤봉으로 전신 구타, 의자에 묶어놓고 손발을 치고 때리기, 수갑 채운 채 구둑발로 밟아 실신시키기,
 - * 구타를 당해 여러차례 실신 상태에 이름.
 - * 전신 구타로 인해 귀가 들리지 않게 됨(일시적 현상인지 영구적인지는 불명확)
 - * 고문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 위해 옥상으로 도망치던 중 발각되어 무차별 구타 당함.
 - ** 정영씨의 아내 또한 10일동안 고문을 당하였음.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10. 재판 관련 사항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허위진술서에 대한 진실을 밝혔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11. 고소, 고발 여부 :
12. 수사관 처벌 여부 : 정영씨를 고문한 수사관들은 정부에서 공로표창 받음.
13. 출처 : 정영씨의 옥중진정서 (연도 추정 불가능)

10> 남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 이상철

1. 이름 : 이상철(광주교도소 2473번)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남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3. 10. 15. (북체류 기간 : 1971. 9 - 1972)
 - 4-1. 사건 개요 : 이상철씨는 1971. 9월 동해에서 오징어 조업 중 북한으로 납치되어 1972년 귀환. 귀환 후 중앙정보부와 한미 MP502에서 북한체류기간의 행적에 대한 모든 것을 진술. 춘천지방법원에서 73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복귀. 그 후 거제 대우조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 1983. 10. 15일 보안사로 강제 연행. 45일간의 특수고문 받음. 재판 당시 86, 88올림픽을 기해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틈을 타 북측과 접선할 가능성이 높고 접선이 이루어 진다면 북의 명령에 따라 대우조선의 중요기지를 발파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근거 17년의 징역 선고 받음.
5. 구금 기간 : 1983. 10. 15 - 현재(이상철씨의 옥중서한 작성 당시 - 93년 이후)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45일
7. 수사기관 : 보안사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잠 안재우기, 전신 몽둥이 구타, 발바닥 때리기, 머리카락 천장에 매달기, 물먹이기(발가벗기고 손발을 묶어 거꾸로 매단 상태), 남자성기 고무줄로 묶어 잡아당기기, 전기고문(남자성기에 전선을 감고 전기고문)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남자성기의 전기고문으로 3년간 성기 발기 불능 상태. 현재도 그때의 전기고문으로 인해 1년에 2회 정도 피곤하면 전선을 감았던 자리에 물집이 생기고, 팔목과 허벅지에도 후유증 나타남.
10. 재판 관련 사항 : 재판과정은 가족접견이 금지된 상태였고, 검사실과 법정에는 보안사 요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구형과 선고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상철씨의 항변은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음. 살벌한 군부독재의 외압으로 공정성이 결핍된 재판이었음.
11. 고소, 고발 여부 : 이상철씨는 남북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군부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10년간(옥중서신 작성 당시) 징역을 살고있다. 그는 군부독재의 희생물이 된 자신과 남북어부조작간첩사건 관련자들의 한맺힌 억울함을 풀고 인권을 회복하고자 '문민정부'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것을 호소하는 옥중서한을 보냈다.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이상철씨의 옥중서신 (1993년 이후)

11> 치안본부 고문치사 사건- 김근조

1. 이름 : 김근조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경찰 고문 피해자 김근조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3. 3. 22.

4-1. 사건 개요 : 83년 3월 22일 한일합섬 이사였던 김근조씨는 토지재매입사건으로 치안본부특수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부산 시내 S여관에서 김만희경위(42)에게 조사받던 중 졸도,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겨진 3일 후 절명하였다. 경찰은 고문으로 인한 뇌출혈으로 의식불명된 김근조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의료진들에게 '약물중독이니 위세척을 하라'고 요구하여 4시간이나 방치하게 해 적절한 시기에 뇌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여 살아날 수도 있던 사람을 죽게 하였다. 또한 김근조씨와 같이 연행되었던 이무걸경리과장도 고문을 당했으며, 이들 두사람에 대한 고문행위에는 구속된 김만희경위 외에 최상근경위, 라기선경사도 가세했다고 발표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가족들과 민한당 등의 문제제기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김만희경사가 구속되었고, 고문여부에 대해 수사·재판되었으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었다.

5. 구금 기간 : 2일 (83. 3. 22 - 3. 23. 새벽 4시 정도)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2일
7. 수사기관 : 치안본부특수수사대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자료미비

김만희경위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이사가 순순히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10시 20분경 옷을 펜티만 남기고 모두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한쪽 발을 들고 엎드려뻥쳐」를 반복시키며 손날로 뒷목덜미를 2-3회 구타하고... 여관방 열쇠가 달린 플라스틱 고리로 발바닥을 수회 구타... 뺨을 때리려하자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부딪쳐...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좌측두부 두피내출혈상과 두절부 두피하출혈상을 입게 하고..." 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 유가족들은 이러한 판결문에 대해 「손마디관절 무릎 발목관절등에 지능적인 고문 흔적이 뚜렷」하다며 사건이 은폐·축소되었다고 주장했다.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사망

10. 재판 관련 사항 : 김근조씨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를 고문했던 김만희경위가 구속되었고 재판이 이루어 졌으나(김근조씨와 이무걸경리과장을 함께 고문했던 최상근경위와 라기선경사는 구속되지 않았다), 사건은 은폐·축소되었다. 또한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5년 3월 서울민사지법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이미 한일합섬측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김이사에 대한 일실퇴직금을 포함한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유가족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가족들은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

했으나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세무서측으로부터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갖은 위협과 「항소를 포기하라」는 끈질긴 설득을 받아왔다.

11. 고소, 고발 여부

12. 수사관 처벌 여부 : 고문했던 3명 수사관 중 김만희경사만이 구속되어 재판 받았다. 결과는 자료 미비로 알 수 없음.

13. 출처 : ① 동아일보 (1983. 3. 29)

② 한겨레신문 (1987. 1. 21)

12> 대공분실 간첩날조 사건- 조봉수

1. 이름 : 조봉수(안동교도소 1312번)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간첩조작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4. 8. 13.
 - 4-1. 사건 개요 : (본 자료로는 사건의 전모 파악 불가능) 1984. 8. 13일 경남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84. 10. 24일까지 72일간 불법 감금되어 비인간적 고문받음. 전문기술자 (경위)이상원, (경사)이가조, (경사)김진태, (경사)손영일, (경장)임기영, (순경)김상수, (대공분실장)성명불상자 등에게 심한 고문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됨. 증인 문상근, 손송남을 경찰이 공갈·매수하여 위증하게 하였음. 일본 밀항 행적 72일에 관한 것과 밀항으로 돌아오면서 가져온 밀수녹용 6관 밀매 등을 강요된 위증과 조작으로 고도의 증거로 삼았으나 2심판결에서는 현장검증확인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달리하였음. 부산안기부분실 소속 세관기록실장(한수남, 임백현)등에 의해 조봉수씨가 1970-1973년간 대공요원으로서 공적 및 보상받았던 것이 증명되었음. 1979년 부산 보안사분실장(김윤광)이 조봉수씨가 대일간공작요원으로 특채되어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사실을 밝힘. 조봉수씨의 보안사 근무연한은 1980부터 밀항 72일간을 제외한 1984년까지임.
5. 구금 기간 : 1984. 8. 13 - 현재(옥중서신 작성 당시 - 1988. 12. 28)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72일
7. 수사기관 : 경남 대공분실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통닭구이형자세의 수건씩은 물고문, 전신 몽둥이 구타, 잠 안재우기(15일간), 발바닥 때리기, 성고문(남근을 채찍으로 때리기) 등.
 - * 밤 12시 이후에 발가벗겨 통닭구이자세의 물고문(수건씩은) 10회 이상 받았으며, 실신상태에서 조작·허위자백을 받아냈음. 낮에는 야구방망이 모양의 몽둥이로 전신 구타당했으며, 15일간 잠을 못자게 하였고 다리 정강이를 차고 구타하였으며, 발바닥을 맞던 중 뼈를 다쳐 심하게 부어 올라 걷지 못하고 약 30일간 통증에 시달렸고, 남근을 예리한 채찍으로 수차례 맞았음.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10. 재판 관련 사항 : 수감시에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88년도의 선별적인 사면이후에 조봉수씨는 밖에 있는 부인을 통해 항소하기 위해 본 편지를 썼음(당시 1988. 12. 28일).
11. 고소, 고발 여부 :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조봉수씨가 아내에게 보내는 옥중서신 (1988. 12. 28) - 부인에게 보낸 편지로 사건의 전모 및 현 상황 파악의 자료로서는 부족함.

*** (본 사건이 보안사 소속 직원에게 역으로 간첩혐의를 씌운 것인지 확인해 볼 것)

13>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 황대권

1. 이름 : 황대권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5. 6. 4.

4-1. 사건 개요 : 황대권씨는 82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84년 유학생과 결혼하였다. 85년 아내, 아기와 함께 귀국한지 하루만에 안기부에 강제연행되었다. 황대권씨는 안기부에서 60일간의 혹독한 고문과 사건조작에 의해 구미간첩단의 일원이 되었다. 수사과정에서의 무자비한 고문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기만적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고문없는 이루어진 검사조서가 작성되었음을 들어 허위진술서를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였다. 3심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와 증인들은 진실을 밝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기부의 발표에 의하면 “3명의 미국 유학생(양동화, 김성만, 황대권)이 미국에서 북괴의 간첩으로 되어 귀국, 국내의 학생운동권에 침투, 암약하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15명의 대학생과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구속되어 4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현재(88년 12월) 11명이 7년에서 사형 언도까지 선고받고 전국 교도소에 분리 수감되어 있다.>

5. 구금 기간 : 1985. 6. 4. - 현재(옥중서신 평화신문 기재 1988. 12. 11.)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60일

7. 수사기관 : 안기부(남산)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굶기, 잠 안재우기, 무릎꿇려 앉힌 뒤 발바닥 각목으로 때리기, 물고문(발가벗긴 후 두손을 뒤로 묶어 옥조에 눕혀 수건덮은 얼굴위로 샤워기 사용), 전신 몽둥이 구타, 성고문(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각목으로 내려치기), 비너꽃기(상대에서 수건덮은 물고문), 세뇌고문(허위자백-번복 수십번에 이르며 극도의 고통 당함), 가족들에게 고문을 하겠다는 위협 등.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10. 재판 관련 사항 : 3심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와 증인들은 진실을 밝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가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모두 동일하였음.

11. 고소, 고발 여부 :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평화신문 (1988. 12. 11) - 황대권씨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옥중서신

14>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 김성만

1. 이름 : 김성만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5. 6.

4-1. 사건 개요 : <안기부의 발표에 의하면 “3명의 미국 유학생(양동화, 김성만, 황대권)이 미국에서 북괴의 간첩으로 되어 귀국, 국내의 학생운동권에 침투, 암약하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15명의 대학생과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구속되어 4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현재(88년 12월) 11명이 7년에서 사형언도까지 선고받고 전국 교도소에 분리 수감되어 있다.>

고문수사관 : 수사과 김계장(책임자), 이종기(부책임자, 당시 45세), 정수사관(충청도 출신), 유수사관.

5. 구금 기간 : 1985. 6. - ?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60일

7. 수사기관 : 안기부(같은 방에서 60일 동안 고문 당함)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물고문, 잠 안재우기, 각목으로 전신 무차별 구타, 성고문(성기 집중 구타), 발바닥 때리기, 무릎을 뒤로 꺾고 그 사이 밟기 등.

* 온몸에 붉은 멍, 푸른 멍이 들었고 멍이 안 든 곳은 손바닥 뿐이었고 걸을 수 없는 상태.

* 각목으로 얼굴을 구타, 눈썹이 찢어지자 국내에는 없는 약이라며 발라주면서 계속 구타함.

* 모진 고통을 참아 내느라 아랫입술을 깨물어 아랫입술이 모두 헤진 상태에서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고, 고문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유서를 써놓게 하였음.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10. 재판 관련 사항 :

11. 고소, 고발 여부 :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불분명

15-1> 반제동맹 사건 - 박충렬

1. 이름 : 박충렬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반제동맹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6. 10. 28.

4-1. 사건 개요 : 자세한 사건 개요 생략.

반제동맹사건은 당시 광범위하게 발생한 용공조작사건의 하나로 19명의 젊은이들이 고통받았다.

박충렬, 이민영, 문민성, 조정식, 박시중, 김진우, 김현권, 여영학, 이동엽, 전원하, 김진호, 김구현, 이병주, 우종원, 구용희, 김원재, 이의엽, 이광규, 염종영.

5. 구금 기간 : 26개월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32일

7. 수사기관 : 경기도경 대공분실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주먹, 구둣발, 가죽,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 때리기·밟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굶기기, 통닭구이, 통닭구이자세로 물고문, 통닭구이자세로 고춧가루 고문, 비너꽃기, 입에 재갈 물리기,

* 고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시도(허깨물기)했으나, 실패하였고 고문기술자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함. 그 후에는 뒤로 수갑 채워진 채 수사받음.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신경통, 손 마비, 다리 떨림(정상적으로 걷기 힘들),

* 손의 마비와 떨림으로 수도꼭지를 틀 때 한손으로 못틀고 두손으로 틀어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개처럼 활아 먹어야 했음.

10. 재판 관련 사항 :

11. 고소, 고발 여부 : 89. 1. 14일 이근안·한중철 등 고문수사관 고소

93. 11. 4일 고문수사관 고소사건 공소시효 만료

94년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국가 상대)

12. 수사관 처벌 여부 : 고소했으나 구체적 수사착수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 만료되었음.

13. 출처 : 반제동맹사건 재판 기록 「예속의 사슬을 끊고 통일의 그날까지」, (출처 불분명), 1987. 10.

** 재판기록의 발췌문이라 사건의 배경, 전모, 고문가해의 구체적 사실들을 알기 어려움. 특히 법정진술이라는 한계로 인해 각 개인에게 가해진 고문의 사실들이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 정보로서의 가치를 확신하기 어려우나, 19명 중 박충렬, 이민영, 염종영씨의 진술을 정리하였음. (박충렬씨의 인터뷰 녹취문을 보면 더 많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음)

15-2> 반제동맹 사건 - 이민영

1. 이름 : 이민영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주먹, 몽둥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 세뇌고문, 매달기, 물고문 등

* 자살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그때마다 무차별 구타.

* 사건조작을 위해 “남한혁명은 미제와 괴뢰정권을 타도한 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혁명이다”를 매일 외우게 하였음.

*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팔하나 들어올리기도 힘들었음.

15-3> 반제동맹 사건 - 염종영

1. 이름 : 염종영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검찰에서 검치 중의 고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음)

.. 폭언, 고문한 수사관들이 찾아와 구치감에서 고문(발가벗긴 채 몽둥이로 무차별 구타, 양다리 묶어 거꾸로 매달기, 발바닥 때리기)

* 경찰에서 뿐 아니라 검찰에서 고문받았음을 증언.

16> 보안사의 박인균 살해기도 사건 - 박인균

1. 이름 : 박인균

2. 생년월일 : (1961년)

3. 사건명(사건번호) : 보안사의 박인균 살해기도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6년 11월 7일

4-1. 사건 개요 : (박인균은 80 - 84년 사이에 시위와 노조결성을 이유로 3차례 징역. 본사건 이후인 92년도에도 남산안전기획부에 불법적인 감금과 고문 당함.) 박인균은 86년 4월 강원도 태백에서 노동자 소모임을 운영하던 중 장익수를 소개받아 소모임에 참가시켰다. 장익수(본명 장창국)는 보안사의 프락치로 추정되어 그를 모임에서 제외시킴. 86년 11월 7일 장익수와 의 약속으로 만남. 장익수는 박인균을 절벽으로 유인하여 사제폭탄을 보여준 후 그것으로 박인균의 머리를 가격. 박인균은 20여 미터 바위절벽 아래로 추락. 머리가 깨져 출혈, 온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감. 기어서 인근 마을로 피신. 병원으로 옮기던 중 통리검문소에서 강릉소재 보안사 지하실로 연행. 사건발생 직후 노동자소모임 구성원 최진석(동해광업소, 당시 24세), 원기준(황지교회전도사, 당시 26세), 정문호(함태광업소, 당시 24세) 등 10여명 보안사로 연행. 보안사에서 9일간에 걸쳐 북한의 지령에 의해 비밀테러단을 조직하였다는 사건조작을 위해 심한 고문당함. 재야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장익수는 단순폭력으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곧 석방됨.

5. 구금기간 : 86년 11월 8일 - 11월 17일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9일 정도.

7. 수사기관 : 보안사(강릉소재)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발가벗긴 상태에서)전신구타, (찬물 속에 집어넣는)물고문, 고춧가루고문, 다리사이에 각목 끼워넣고 밟기, 잠 안재우기. 안면있는 여성이나 동료, 가족 등에 대한 성적 모욕과 고통을 가하겠다는 등의 정신적 고문 등.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사건 당시 절벽에서의 추락시의 부상과 보안사의 고문으로 인해 두통과 신경통 등의 육체적 고통과 불면과 공포의 잠재에 의한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음.

(92년 중부노동당사건 때 남산안전기획부에 불법적 감금되어 심한 구타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 고문 후유증에 더욱 시달리고 있음.)

10. 재판 관련 사항 :

11. 고소, 고발 여부 :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유가협 박래군 사무국장이 준 자료)라 써있음. (1993년 이후)

17> 신길동 학생시위 사건 - 강환웅

1. 이름 : 강환웅

2. 생년월일 : 1964. 12.

3. 사건명(사건번호) : (신길동 학생시위사건 관련)

4. 사건발생 시기 : 86. 11. 13.

4-1. 사건 개요 : 86년 중대 법학과 입학. 86. 11. 13일 신길동 학생시위사건 때 연행, 노량진경찰서에 조서작성시 구타와 영등포구치소에서 가혹행위 받음. 87년 2, 3월경 집행유예로 출소. 강환웅은 출소 직후 몹시 불안해 했으며 형사들이 계속 찾아오자 스스로 사회과학 서적들을 불태워버렸음. 곧바로 복학했으나 정신이상 증세로 휴학 5, 6차례 후 93. 2월 졸업. 현재도 정신분열증으로 본인과 가족 고통당함.

5. 구금 기간 : 86. 11. 13 - 87. 2(3).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7. 수사기관 : 연행과정, 노량진 경찰서, 영등포구치소.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 연행과정에서 쇠파이프, 각목에 의한 구타, 군화발로 짓밟힘.

* 노량진 경찰서 조서작성시 전신구타.

* 영등포 구치소 이감시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다량 풀어 먹여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아 음식물 토함.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 89. 5. 18일부터 3개월간 중대부속병원(정신과) 입원. 통학길 버스에서 자기에게 욕하는 소리의 환청이 자주 들린다고 괴로워함. 병명은 정신분열증.

* 93. 3 - 6. 다시 중대부속병원 입원. “나는 죽고 싶다”를 연발. 2-3일동안 밥도 안 먹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좌선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다가 난폭해짐. 자신이 영웅이 된 양 행세. 방안에서 혼자 쇠막대기를 휘두름. 관계망상증 증세 보임. 입원 당시 저항해 노끈으로 묶어 차에 실었음. 퇴원후 한동안 회복되었으나 점차 의욕이 없어졌고 대부분 집안에만 있고 자면서도 손이 떨림.

* 93. 12. 31 - 94. 2. 중대부속병원 입원. 93년 졸업하기 한달 전부터 증세가 안 좋아짐. “나는 안 간다”면서 기도만 하고, 학교 내에서도 강환웅이 기도해서 학생들이 우르르 몰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함. 다시 시골에서 생활하다 증세가 심해져 경찰을 불러 도움을 받았으며 스타킹으로 뒤로 손을 묶어 입원시킴. 영웅적인 말투를 보임. 가족들은 병원비를 책임질 수 없어 서울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다시 중대부속병원에 입원시킴.

10. 재판 관련 사항 :

11. 고소, 고발 여부 : 가족들은 소송할 생각도 해봤으나 헛 짓일 것 같아 그냥 있다가 작년(92-93년 썸)에 청와대로 진정서 제출. 그러나 아무런 회신 없음. 가족들은 강환웅씨의 병원비 및 간호에 지쳐있

는 상황임.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강환웅씨와 상담한 내용 정리문 (상담일 : 1993. 9. 20)

18>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 이성수 외

1. 이름 : 이성수(27. 성대 산업심리4 중퇴), 현정덕(27. 사노맹 연락국장. 성대 화학3 휴학), 남진현(28. 사노맹 중앙위원. 서울대 무기재료3 재적), 정미화(22. 여. 대구 대덕국교 교사), 전금숙(24. 여. 성대 졸), 장호영(22. 안양성결신학대3), 김옥현(28. 민중당 대구북구지구대 대외협력 간사), 정은희(26. 여. 경희대 민주동문회 홍보부장), 권종길(25. 고려대 영문 졸), 한두석(27. 한양대 경제4), 이동기(29. 민중당 대구북 지구당 운영위원) 등.

2. 생년월일 :

3. 사건명(사건번호)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90. 9.

4-1. 사건 개요 : 안기부는 사노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에게 구타, 잠 안재우기, 남자 성기 때리기 등 여러 가지 고문을 통하여 사건을 조작했음이 피의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또 안기부가 사노맹 사건 관련 구속자 가운데 일부(정미화 22, 전금숙 24, 김옥현 28, 정은희 26, 권종길 25, 한두석 27, 이동기 29. 등) 는 사노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본 사건을 안기부가 사건 조작·과장하였음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접견이 연행된 후 한달이 지나서야 가능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보전이 불가능했다.

5. 구금기간 : 1990. 9. 17 - (?)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7. 수사기관 : 안기부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전신 구타(심한 탈수현상 보임), 잠 안재우기, 몽둥이 구타, 발가벗긴 채 플라스틱 자로 남자 성기 때리기 등.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10. 재판 관련 사항 :

11. 고소, 고발 여부 : 전민련, 민가협 등 재야단체와 변호사, 관련자 가족들은 고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의 불법·탈법행위를 국제인권 관계기구에 제소할 것을 결정(당시 1990. 11.).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① 한겨레신문 (1990. 11. 7)

② 한겨레신문 (1990. 11. 8)

③ **신문 (1990. 11. 8)

④ 중앙일보 (1990. 12. 22)

19>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 주병화

1. 이름 : 주병화

2. 생년월일 : (65년)

3. 사건명(사건번호)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92. 9. 14.

4-1. 사건 개요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자료 미비) 주병화씨는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다. 그는 홀어머니와 형과 함께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중학교 졸업 후에 공장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청년이었다. 그는 열악한 노동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정의와 질서가 잡힌 행복한 사회를 꿈꾸게 되었다. 그는 노동현장의 모순을 극복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애쓰는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내용도 모르는 채 그 조직이 간첩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누명이 씌어지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었다. 사건조작을 위해 20여일간 외부와 격리되어 수사관들에게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 더욱이 그는 혐의 사실과 전혀 관련없는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수사관들로부터 모욕을 받았다. 그때의 충격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사실증언서 작성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나 주변인물 모두를 안기부원이라 여기고 있다. 28세(사실증언서 작성 당시)의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당한 고통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아 내가고 있다.

5. 구금 기간 : 1992. 9. 14 - 1993. 2. 25.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7. 수사기관 : 안기부

8.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9.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동안에도 접견 온 변호사를 안기부원이라고 믿고, 안기부에서 가족들을 불모로 잡고 있다고 믿음. 석방 이후에도 주변인물들을 모두 안기부원으로 오인하여 경계하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평온한 생활이 불가능.

10. 재판 관련 사항 :

11. 고소, 고발 여부 :

12. 수사관 처벌 여부 :

13. 출처 : 자필 사실증언서 (1993년 썸)